

사관학교 대전 통합과 입시 생태계의 붕괴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국가 정책과 제도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덕목으로 지나침과 부족의 양 극단을 배제하는 ‘중용(Mesot’s)’의 실천적 지혜를 제시했다. 중용이란 기계적 중간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목적과 수단을 이성적으로 규명하는 결단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국방·당국이 추진하려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대전 통합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안은 이러한 중용의 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학령 인구 절벽에 따른 정원 감축과 3군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각 사관 학교별 정원 미세조정(Downsizing)과 교과 개혁으로 해결할 문제를 외형적 토목 공사로 왜곡한 과잉불급의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군종별 브랜드 가치 훼손과 입시생 수용성 저해**

사관학교 입시는 단순한 대학 진학이 아닌, 명확한 군사적 정체성과 장기적 진로 비전을 선택하는 특수목적 대학의 입시 구조를 갖는다. 육군은 지상전 리더, 해군은 진해 인프라 기반의 해양 안보 전문가, 공군은 청주성무비행장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인재 양 성하며 독자적 입시 브랜드를 구축해 왔다. 수험생들은 각 군종 고유의 작전 환경과 졸업 후 전문성을 명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특수목

적 대학에 도전한다. 그러나 3군을 내륙 도시 대전에 모아 획일화된 국군사관학교로 강제 통합하면 진로의 명확성과 브랜드 매력도는 소멸한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버스를 타고 해상 실습을 가는 기형적 교육 모델은 수험생에게 정체성 혼란과 진로 불확실성을 안겨줄 뿐이다.

◆ **획일적 전형에 따른 선발 체계 무력화와 최상위권 이공계 자원의 이탈**

현재 입시 지형은 첨단 이공계 학과 선호와 의학계열 모집 정원 확대 여파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현행 입시는 각 군의 특성에 맞춰 체력, 적성검 사, 비행적성 등 다모듈화된 2차 전형을 운영 하지만, 단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될 경우 평가 요소가 표준화·획일화돼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다면 인재 선발 체계가 무너진다. 이러한 유동적 입시 환경 속에서 사관 학교마저 군별 특수성을 잃는다면 상위권 수험생들은 사관학교 지원 동기를 상실한다. 결국 1차 시험 경쟁률과 합격선이 동반 폭락하면서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해야 할 정예 장교 자원의 질적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 **군사적 특수성 무시가 초래할 역사적 충격과 입시 생태계의 파괴**

역사적으로 군 조직의 내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정치적·외형적 통제에만 집착한 정책은 참담한 비극을 낳았다. 고려 시대 문벌귀족 사회가 군사 조직의 고유성을 유린하고 무신 들을 소외시켰을 때 발발한 무신의 난은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입시 관점에서도 군사적 전문성과 수험생들의 실제적 수요를 외면한 일방적 정치 통합의 강행은, 수년간 사관학교 진학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킬 수 없는 혼란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장교단 내부의 기득권 갈등을 방지하기는커녕 현장의 입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은 국가 정예 장교 양성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입시적 자해 행위다.

◆ **자운대 연계를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용적 개혁 방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철학은 입시 생태계를 살리고 정예 장교를 육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현 체제에 안주해 특정 출신의 독점 구조를 방지하는 것이 ‘부족’의 오류라면, 지형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물리적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과다’의 오류다. 안보와 입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용의 길은 기존 인프라와 브랜드를 유지하되, 내부 교육 소프트웨어와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는 실천적 지혜에 있다. 진해, 청주, 서울에 구축된 입시 브랜드와 전문 실습 인프라를 온전히 보존해 우수 인재를 흡수해야 한다. 대전 자운대는 신규 캠퍼스 부지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합동군군사대학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인프라를 활용해 3, 4학년 생도들의 ‘소프트웨어적 합동 교육 및 첨단 국방과학 교류의 장’으로 재정 의하는 것이 진정한 중용이다. 외형적 대전 통합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내실 있는 교육 개혁과 공정한 인사 구조 확립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AI·무인화 시대, K-방산 ‘연결의 범위’가 넓어진다



기 지 수 접
유 혜 온
(산업부)

한화시스템이 오스트리아 슈벨의 무인기에 국산 5G 기지국과 통신·항전장비를 엮는 차세대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해외 기체에 국내 기술을 심는 방식이다. HD현대, 대한항공, 현대로템 역시 해외 기업의 AI·자율 임무 기술을 자사 함정과 무인기, 지상 플랫폼에 접목하고 있다.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하기보다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는 전략이다. 한국 기업이 강점

을 가진 기술은 해외 플랫폼에 적용하고 필요한 역량은 해외 협력으로 확보하는 방식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해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기술 의존으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기술을 하나로 묶는 체계통합은 방산의 오랜 기본 원리다.

달라진 점은 AI와 무인화의 확산으로 ‘연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는 단일 플랫폼 내부의 결합을 넘어 무인기와 무인차량, 유인 전투체계 등 서로 다른 전력을 연결해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무인자율체계를 확대하는 주요국들이 상호운용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서로 다른 전력이 작전 공간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움직이려면 체계 간 상호 운용을 위한 기술과 표준이 뒷받침돼야 한다.

AI·무인전력 시대의 경쟁력은 개별 기술의 국적이나 무기 단품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기술 확보는 기본이다. 여기에 기술을 적절한 플랫폼에 적용하고 서로 다른 유·무인 전력과 연결해 실제 운용 가능한 체계로 구현하는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K-방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단일 무기체계의 성능과 핵심기술 국산화율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확보한 플랫폼과 센서, 통신망,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작전체계로 연결하고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함께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김상회의四季

삼복(三伏) 지혜



2026년 병오(丙午)의 물상 자체가 하늘의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해의 기운인 병화(丙火)와 땅의 지기 역시 뜨거운 열을 품고 있는 오화(午火)인지라 한낮의 해와 열기가 팽배한 항국이다. 전세계가 열풍 선이 덮친 것처럼 전례 없는 이중 열도를 겪고 있다. 이는 북극 얼음이 녹아내려 고기압의 형성이 두서없이 강해진 탓도 있지만, 음양 오행적 관점에서 지구가 병오의 기운을 마주하였으니 천지자연의 조화가 어찌 이리도 들어맞는지 신기할 뿐이다. 삼복은 여느 해보다도 남다른 열기에 몸을 상하기에 십상이니 잘 유념하여 지혜로운 여름나기를 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양력 7월 15일이 초복이었고 중복은 7월 25일이었으며 말복은 8월 14일이었으니 하지로 부터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일(庚日)이 초복과 중복이 되며 말복은 입추 절 기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된다.

입추가 지났으니 아침저녁으로는 열기가 사뭇 약해지기는 하나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이열치열의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은 여름을 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다. 삼복을 정할 때 특별히 경일(庚日)을 정한 데에는 한여름의 뜨거운 해가 쇠를 녹일 정도의 열기를 가진 날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복날의 복(伏)자에는 개를 나타내는 견(犬)자가 들어있으니 그 더운 열기에 개마져 허를 늘어뜨리며 엎드린다는 모양새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은 보통 열을 간격으로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올해 병오년은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다. 말복은 입추가 지나야 말복의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 이런 말복을 가리켜 월복(越伏)이라 하니 우리 조상들의 풍부한 사유력도 느끼게 된다. 오늘날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 시절 견공들의 희생에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보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15.3판권

결합형 스도쿠110

중고스도쿠용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3
				8		9
						4
8					4	2
	6	4				3
6				8		
	1		9			
	2			6	5	7

4		8	5			3		9
			3					
7				1			5	6
								7
			2				5	
3								
2	9			3				1
							7	
1		7			2	6		5

8	2	6	9	8	1	6	2	7
2	9	8	7	6	8	1	9	
6	7	1	9	8	2	7	8	9
6	9	6	2	1	8	7	9	2
9	1	8	6	2	7	9	5	8
2	2	7	8	9	5	1	6	8
7	8	9	2	6	1	8	9	1
1	6	2	8	9	8	9	7	2
9	8	2	1	7	9	2	8	6

9	6	9	2	8	7	2	8	1
2	8	2	6	9	1	7	9	8
1	7	8	9	8	2	9	6	2
7	9	2	1	6	8	9	2	8
8	1	9	7	2	9	2	8	6
2	8	6	8	9	2	1	7	9
9	9	7	8	1	8	6	2	2
8	2	1	2	7	6	8	9	9
6	2	8	9	2	9	8	1	7